

비가 오기 시작하면 집안은 순식간에 다른 행성처럼 보인다. 거실의 빛은 흐리고, 창틀 가까이로 갈수록 공기는 차분해진다. 밤이면 그 변화가 더 도드라진다. 외로운밤에는 특히 그렇다. 같은 방, 같은 소파, 같은 시계인데도 유리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방울의 궤도가 묘하게 넓은 공간감과 심도를 만든다. 그 좁은 유리판이 사실은 바깥과 안쪽, 오늘과 어제, 마음과 몸을 경계 짓는 유일한 막이 되어 있다. 비가 이 막을 언어처럼 두드린다. 그 언어가 패턴이다.

## 유리 위 물방울이 남기는 기하학

눈으로 보면 엉성한 흐름처럼 보이지만, 창문을 따라 내려오는 빗물은 물리학의 질서를 성실하게 따른다. 유리 표면의 친수성, 기울기, 표면 결함의 분포, 실내의 온도와 습도, 바람의 각도가 어우러져 각기 다른 분지 구조를 만들어낸다. 여러 번 관찰하다 보면 두세 가지 규칙이 눈에 밟힌다. 굽게 맺힌 첫 물방울이 중력에 잡혀 떨어지며 얇은 실핏줄 같은 자취를 남기고, 뒤이어 엮히는 작은 방울들이 그 자취를 따라 합류한다. 어떤 흔적은 매끈하게 이어지고, 어떤 흔적은 중간에 잦아들어 점선처럼 끊긴다. 실내의 온도가 높아 유리 안쪽에 김이 서린 날이면 그 점선 사이가 우윳빛으로 탁해져서 흐름이 도드라진다.

싱글 글레이징과 로이 코팅 이중창의 차이도 분명하다. 오래된 원룸의 얇은 유리는 바람을 그대로 전하며 흔들리고, 물방울이 빠르게 미끄러진다. 새로운 아파트의 이중창은 표면 에너지가 낮아 방울을 작게 쪼개며, 경로가 끊임 없이 재조합된다. 정오에 시작된 비가 밤까지 이어질 때, 해가 기울며 방 안의 색온도가 바뀌고, 백색 전등을 켜면 유리 위 패턴이 갑자기 반사광을 엮어 다른 깊이가 된다. 그 순간 유리는 거울이자 필름이다.

나는 어느 겨울밤, 창틀의 하단 고무 패킹이 닳아 작은 고랑을 만든 것을 발견했다. 그 얇은 홈 하나 때문에 빗물이 한쪽으로 몰려, 왼쪽 하단에서만 유독 두툼한 물줄기가 탄생했다. 그 두툼한 줄기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갈라졌다. 일주일 사이 열 번 넘게 반복되는 갈라짐을 보면서, 작은 결함이 어떻게 예측 가능한 문양을 만드는지 배웠다. 그 예측 가능성이 외로운밤의 초조를 완화해 주기도 했다. 불확실한 건 마음뿐이라는 착각이 좋았다.

## 빗소리의 스펙트럼, 그리고 침묵의 종류

시끄러운 비가 있고 조용한 비가 있다. 금속 난간과 차양을 강하게 때리는 소낙비는 박자감이 뚜렷하고, 그런 날엔 창문을 닦아 내려오는 물길도 과감하다. 반면 안개비는 마치 먼지가 앓듯 소리 없이 유리를 적신다. 전자는 리듬이고, 후자는 텍스처다. 한밤의 목동 아파트 단지에서 들었던 비는 네온사인인 흠뻑리는 분홍빛과 잘 어울리는 얇은 바스락 소리였다. 이 소리는 건물 간격, 나무의 잎사귀 크기, 지면의 포장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같은 강우량이라도 쇠석 깔린 정원과 우레탄 놀이터는 완전히 다른 타격음을 낸다.

어린 시절 살던 주택에는 경사진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 빗소리가 통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양동이에 떨어지는 소리가 주기적으로 높아질 때마다, 바깥은 더 거칠게 흘러가고 안쪽은 부엌에서 김이 더 세계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때의 비는 소리에 윤곽이 있었다. 지금의 아파트는 창문 틈새를 거의 완벽히 막아 소리는 더 무음에 가깝고, 대신 유리 표면의 패턴이 더 눈에 들어온다. 조용한 비는 사람을 더 내면으로 데려간다. 외로운밤에는 그 침묵이 무서울 때가 있다. 그럴 때 유리로 시선을 옮겨, 조그만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따라가면 한시적으로 생각의 끈이 바뀐다. 사람을 덮치는 고독 대신 물리적 현상을 관찰하는 안도감이 온다.

## 도시의 불빛과 패턴의 상호작용

비 내린 창은 도시의 빛을 구부린다. 도로의 헤드라이트가 지나갈 때마다 유리의 특정 굴절선이 번쩍이며 살아난다. 간판의 글자는 늘어지고, 신호등의 빨강은 물방울 가장자리에서만 강하게 탄다. 이륙 대기 중인 공항의 야간 활주로처럼, 내 방의 창에도 밝은 점들이 규칙적으로 나열되고, 빗방울이 그 사이를 내부반사로 통과한다. 육안으로는 놓치기 쉬운, 경계의 색 띠 같은 것들이 있다. 그 띠는 관찰자의 고개 각도에 따라 미묘하게 자리르 옮긴다.

어느 금요일 밤, 노란색 차량 경광등이 오 분에 한 번씩 내 창문을 쏘고 지나갔다. 전봇대 공사 차량이었는데, 현장 안내를 위해 계속 같은 패턴의 회전을 반복했다. 그 빛이 비를 만나자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으로 갈라졌다가 하나로 모였다. 비와 빛, 그리고 반복의 결합은 예상 외로 마음을 진정시켰다. 불응답 메시지를 세 통 보내고 답을 기다리던 밤이었는데, 반복되는 광선은 기다림의 체감 시간을 줄여 주었다. 내상과 회복, 기대와 포기 사이를 오갈 때, 바깥에서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어떤 규칙성은 돔 형태의 차폐막처럼 작동한다.

## 사진으로 옮긴다면, 육안과 다른 변수들

비무늬를 사진에 담아 본 사람은 안다. 눈으로 보던 것과 완전히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 유리는 거울처럼 반사하는 동시에 렌즈처럼 굴절한다.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삼각대를 세우고 셔터 속도를 1/5초 정도로 길게 두면 흐름이 부드러운 선으로 이어지고, 1/100초 이상으로 올리면 방울의 표면 장력이 살아난다. ISO를 높이면 노이즈가, 조리개를 조이면 도시의 점광들이 별처럼 또렷해지지만 전체 밝기는 확 줄어든다. 수동 초점을 쓰지 않으면 카메라가 건너편 원경에 초점을 끌려가 버리기 십상이다.

렌즈 표면에 스며든 작은 물기 하나가 사진 전체의 보케를 책임질 때도 있다. 그 보케는 육안으로는 보지 못한 과장이지만, 어떤 밤에는 오히려 마음의 변주를 잘 대변한다. 촬영을 계획한다면 실내 조명도 바꿔 봐야 한다. 백열 전구의 2700K 근처 색온도는 방울에 따뜻한 테두리를 주고, 주광색 6500K는 유리를 차갑게 만든다. 빗방울과 도시 불빛의 명암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방안의 조명을 아예 끄고 손전등을 얇은 각도로 비스듬히 비취 작은 하이라이트를 심을 수 있다. 이 작은 조치는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에서 보는 것 사이의 간극을 줄인다.

촬영이 단지 기록이 아니라 의식이 된다면, 그 과정은 외로운밤을 통과하는 소박한 방식이 된다. 셔터를 누르기까지의 몇 분, 노출을 조절하는 몇 초, 촬영 뒤 찍힌 이미지를 훑는 1분이 누적되며, 불안의 곡선이 실 낮아진다. 누군가는 필름을 택해 36장의 여유를 천천히 소모하고, 누군가는 휴대폰의 라이브 포토를 반복 재생하며 물방울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찰나를 잡는다. 방식이 달라도 공동의 리듬은 있다. 정지, 관찰, 선택.

## 창문 하나가 만든 무대와 관객석

창문은 프레임이다. 그 프레임이 사각형이라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이 있다. 불규칙한 비의 궤적과 밤의 잔광이 아무리 뒤엉켜도, 네 변의 직선은 안전벨트처럼 감싸 안는다. 도시의 영상 광고판처럼 분당 몇 번씩 장면이 갈아입어도, 네 귀퉁이는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한 번은 방 안 조명이 꺼지고 커튼을 살짝 젖힌 틈으로만 바깥을 봤다. 커튼의 부드러운 곡선이 사각 프레임을 덧씌웠고, 그 뒤로 길어지는 빗물의 선과 자동차 불빛이 은근한 입체감을 만들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생겼다.

이 무대 설정은 일상을 도와준다. 마음이 산만할 때, 창문 안쪽에 컵을 하나 들여놓고 방울의 줄기를 바라본다. 컵 표면에 비친 물결과 창문 위 실루엣이 겹치는 순간, 내 방이 작은 극장이 된다. 무대가 있으면 관객이 되는 것도 쉬워진다. 관객이 되면 감정은 덜 소진된다. 주인공으로 나서 버리면 모든 장면에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관객석에서는 거리를 둘 수 있다. 외로운밤에 가장 필요한 건 종종 정확한 거리다.

## 기억은 비의 패턴처럼 합류한다

비 내리는 밤에는 기억이 자주 모양을 바꾼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근상을 받을 때 입었던 비닐 우비의 냄새, 군복에 흠뻑 젖어 체온이 빠져나가던 새벽 훈련, 택배 상자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배어 나오던 젖은 골판지 냄새. 이 냄새들은 특정한 물방울 패턴과 연결되어 소환된다. 너비가 넓은 방울이 창 밑에 웅덩이를 만들 때면, 식당 앞 고인 비에 비친 붉은 글자가 생각나고, 얇은 비막이 유리 전체를 코팅할 때면,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미뤘던 리포트가 떠오른다.

기억이 이렇게 합류할 때, 중요한 것은 어느 기억에 자리를 내어 주느냐이다. 무작정 방치를 하면 늘 쓸쓸함이 센 기억이 앞장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밝은 장면을 불러낸다. 예를 들어 여행지의 호스텔 창문에 들이치던 뇌우, 방

안으로 들어온 친구들의 웃음, 젖은 옷을 세탁기에 넣는 소리, 말린 수건을 나눠 주던 호스트의 말투. 이렇게 촘촘한 디테일을 한두 개만 끼워 넣어도 전체의 날씨가 바뀐다. 비는 같은데, 패턴이 달라진다.



## 실내의 공학, 실내의 마음

우리는 생각보다 복잡한 재료다. 내부 결로를 막기 위한 간봉의 소재, 로이 코팅층의 스펙트럼 필터링, 실란트의 노화 주기 같은 기술적 요소는 비 오는 밤의 미세한 풍경에 관여한다. 가끔은 창틀의 배수구가 먼지로 막혀 물이 역류한다. 그럴 때 창 아래 벽지가 먼저 물을 머금고, 다음에는 목재 몰딩이 퐁퐁 부어오른다. 배수구 뚜껑을 열어 티슈로 먼지를 닦아내고, 얇은 철사를 넣어 통로를 확보하면, 이후 몇 번의 비에서 물방울의 하강선이 깔끔해진다. 작은 유지 보수가 패턴을 바꾼다.

실내 공기의 질도 큰 차이를 만든다. 가슴기를 밤새 틀어 두면 유리 안쪽 김서림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된다. 표면에 맺힌 미세한 물막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을 더 고르게 흩어, 거리를 좁혀 보이게 한다. 한겨울 전기히터를 켜 날에는 유리 표면의 온도차가 커져 방울이 더 잘 맺히고, 이 방울들이 중간에서 합쳐지는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그 합류 지점에서 빛이 번져 작은 별을 맺는다. 이런 반응은 마음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합쳐지고 정리되는 모양을 보다 보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던 문장들이 천천히 단락을 이룬다.

## 관찰의 기술, 의식의 살결

비 오는 밤의 창문을 자주 본 사람은 손의 자세까지 다듬어진다. 턱을 괴는 각도, 커튼을 젖히는 손가락의 힘, 안쪽으로 한 발 물러서며 반사를 줄이는 타이밍. 무엇보다 관찰하는 시간이 길수록 보는 법이 바뀐다. 처음에는 큰 방울과 빠른 흐름에 시선이 쏠린다. 조금 지나면 미세한 떨림에 관심이 간다. 마치 별을 볼 때, 밤하늘 전체보다 특정 성좌의 빈 공간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과 같다.

관찰을 의식으로 만들려면 몇 가지 작고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의 간단한 루틴은 익숙해지면 십여 분이면 충분하고, 복잡한 준비가 없어도 실행하기 쉽다.

- 실내 조명을 낮춘다. 스탠드 하나만 켜거나, 스마트 조명이 있다면 밝기를 20% 이하로 줄인다.
- 창문 안쪽을 마른 타월로 훑는다. 손때와 먼지를 걷으면 빛의 산란이 지나치지 않아 패턴이 또렷해진다.
- 앉을 자리를 창에서 1.5미터쯤 떨어진 곳에 둔다. 너무 가까우면 반사된 내 형상이 패턴을 가린다.
- 따뜻한 음료를 준비해, 손의 체온을 유지한다. 집중력이 올라가고, 코끝의 냄새 감각이 되살아난다.
- 관찰 포인트를 두 가지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왼쪽 상단의 합류 지점, 오른쪽 하단의 배수로 근처. 선택지는 적을수록 안정적이다.

이 루틴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집의 구조와 내 생활에 붙여 넣을 수 있는 동작들이다.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오래 반복하면, 마음은 그쪽을 기억의 우선순위로 올려 놓는다. 반복의 힘이 외로운밤을 무딘 칼날로 바꿔 준다.

## 음악, 냄새, 촉감의 동조

귀는 비 소리에 쉽게 꽃힌다. 그렇다고 음악을 억지로 끄지는 않는다. 음악이 비와 잘 맞으면, 서로의 빈 구석을 채운다. 피아노 솔로처럼 어택이 짧고 여운이 긴 곡은 빗방울의 점과 선을 교차시킨다. 저음이 많은 앰비언트는 유리 위에 보이지 않는 판을 깔아 움직임의 넓게 만들어 준다. 재즈의 브러시는 아스팔트의 표면을 만지는 소리와 잘 맞는다. 어느 날은 음악을 끄고 냄새에 집중한다. 비가 도심의 먼지를 눌러 내리면, 실내의 나무 가구 냄새가 도드라진다. 오래된 가방에서 꺼낸 견고한 지갑의 가죽 냄새가 섞이면, 그래도 인간적이라는 안심이 든다.

촉감은 종종 무시되지만, 한 잔의 찻잔 무게가 중요할 때가 있다. 250밀리리터짜리 손잡이 잔은 가벼워서 자주 식는다. 300에서 350밀리리터의 두꺼운 머그는 보온이 오래가서 손이 따뜻하다. 도자기의 결도 유리의 냉기에 균형을 준다. 창문은 차갑고 건조하다. 그 반대편에 살아 있는 질감이 필요하다. 차를 따르는 동안 비는 잠깐 배경으로 물러나고, 다시 시선을 올려 보면 패턴이 바뀌어 있다. 바뀌지 않길 바라던 마음조차, 그 사이 한 숨 돌린다.

## 지역의 비, 계절의 층위

서울의 장마는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 길게 늘어선다. 이 시기의 비는 종종 덩어리로 내려와, 창문에 닿기도 전에 미세한 안개가 된다. 여름밤 에어컨 실외기 소리와 섞이면 유리 표면의 패턴은 팽팽한 그물처럼 보인다. 가을 비는 묘하게 맑다. 방울이 빠르고 곧다. 바람이 서쪽에서 불면, 서향 창문은 줄기에 세로 스트라이프를 단다. 겨울 비는 질척하면서도 간헐적이다. 창틀 고무가 수축해 틈이 늘어나면 가장자리에서 일찍 얼음이 맺히기도 한다. 얼음이 키 작은 고드름처럼 자라나, 패턴을 완전히 다른 구조로 바꾼다.

부산의 겨울비는 짝조름하다. 바닷물이 섞여 창틀에 하얀 자국을 남긴다. 이 소금기는 시간이 지나면 금속 부품을 무디게 하지만, 밤에는 빛을 더 오래 붙잡아 둔다. 제주에서 만난 봄비는 바람을 타고 가로로 달렸다. 창문에 빗금처럼 난 선을 보며 방향 감각을 잃었다가, 동시에 제 방향을 찾았다. 빗방울의 궤도가 현을 울리듯, 바람의 음을 눈으로 보여 준다. 도시와 계절마다 외로운밤의 표정이 달라진다. 그 표정을 창문이 중개한다.

## 대화의 시작, 메시지의 빈칸

비 오는 밤에 사람들은 메시지를 더 자주 보낸다. 실시간으로 답이 오지 않으면, 말줄임표를 몇 번이고 지웠다 썼다 한다. 어떤 밤에는 그 아슬한 템포가 유리 위의 흐름과 박자를 맞춘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선과 손가락이 스크린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는 동작이 비슷하다. 그 리듬을 눈으로 알고 있으면 과속을 방지한다. 말들이 지나치게 빠르게 흘러내리기 전에, 화면을 잠시 내려놓고 창문으로 고개를 돌린다. 문자 메시지의 빈칸이 불안을 키울 때, 유리 위 패턴의 빈칸은 여백을 준다.

대화 상대가 멀리 있어도, 동시에 같은 비를 보고 있을 확률은 의외로 높지 않다. 그러나 같은 장르의 패턴을 본 적은 있을 터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창문에 생긴 두 줄기의 합류 사진을 찍어 보낸다. 별말 없이 그 사진 하나로 소통이 된다. 합쳐지는 지점, 잠시 머무는 방울,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선. 답장이 오면, 보낸 이와 받은 이의 두 창문이 잠깐 연결된다. 같은 종류의 외로움이 다른 모양의 위안을 만든다.

## 패턴을 통한 독서, 글쓰기의 호흡

창가에서 책을 읽으면 종종 시야가 흐려진다. 가까운 글자에 집중할수록 바깥의 움직임이 배경으로 물러서야 하는데, 비는 자기 존재를 계속 알린다. 그럴 때는 글을 큰 소리로 읽는다. 입술이 만들어 내는 모음의 길이가 물방울의 하강 속도와 묘하게 맞을 때가 있다. 글쓰기 역시 비와 만나면 속도가 바뀐다. 분당 300자 속도로 쏟아내던 문장이, 창가에서 분당 120자 정도로 늦춰진다. 늦춤은 문장의 빈칸을 살린다. 그 틈에서 다음 문장의 긴장과 백지의 범위를 동시에 가능한다.

한밤에 원고를 마감할 때, 비가 내리면 인용문을 자제한다 대신 구체적 관찰을 늘린다. 독자가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을 더 세밀하게 놓아 준다. 예를 들어, 왼쪽 상단에서 내려오는 얇은 줄기가 세 번째 방울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순간. 그 갈라짐 뒤에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실선이 남고, 네 번째 방울이 두 실선을 잇거나, 어느 하나를 포기한다. 이 디테일 하나가 긴 문단의 힘줄이 된다. 외로운밤의 글은 놀랍게도 과장보다 사실이 잘 듣는다.

## 밤과 비 사이, 사람의 체온

비의 패턴은 차갑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인간의 체온과 닿을 때 균형을 이룬다. 창가에 앉아 30분쯤 지나면 허리와 어깨가 굳는다. 나는 2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크게 벌리고, 손목을 돌리고,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민다. 그 사이 비는 계속 내리고, 창문 위의 세계는 쉬지 않고 변한다. 움직임은 관찰을 살린다. 몸이 따로 있지 않다. 관찰하는 눈과, 듣는 귀와, 따뜻한 손이 같은 사람에게 붙어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자주 잊지만, 비 오는 밤은 상기시킨다.

한겨울 밤, 전기장판을 낮은 단계로 켜 놓고 담요를 무릎 위에 올리면, 빗소리의 저음이 부드러워진다. 외로운밤은 밀어내기보다, 붙잡을 것을 고르는 일이다. 유리의 차가움 대신 담요의 포근함, 소란 대신 낮은 박자, 공허한 스크롤 대신 조용한 패턴. 체온은 선택의 기준이 된다. 나에게 맞는 온도를 찾으면, 창문 밖의 불확실함이 한 톤 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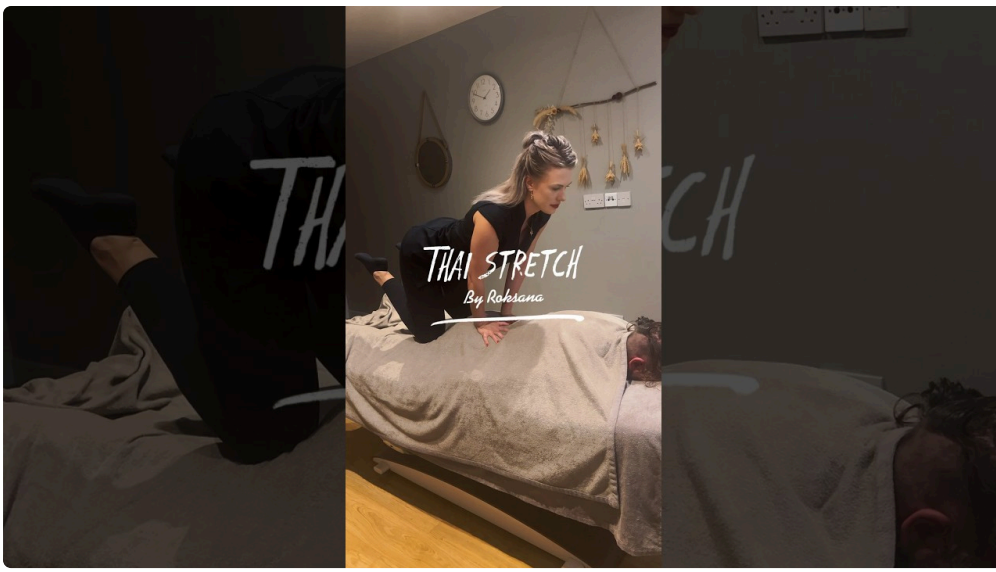
## 다음 비를 위한 작은 메모

비는 예고 없이 올 때 더 반갑다. **외로운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 길게 즐길 수 있다. 창틀의 배수구 상태를 가끔 확인하고, 실내 조도의 조절법을 손에 익히고, 마실 것을 한두 가지 정해 두면 좋다. 사진을 찍을 생각이라면 삼각대 대신 두꺼운 책 두 권을 쌓아 즉석 받침대를 만들 수 있다. 휴대폰은 외부 빛에 쉽게 굴복하니, 화면 밝기를 낮추고 자동 노출 고정을 익혀 두면 빛 번짐이 줄어든다.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관찰의 간격과 시간을 기억해 둔다. 어떤 사람은 7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23분이 좋다. 나에게서는 보통 15분이 적당했다. 15분이면, 처음의 초조가 조용히 낮아지고, 두세 개의 주요 흐름이 자리를 잡는다.

비는 금세 그친다. 다음 날 아침, 창문에 남은 지문 같은 말라붙은 길이 낮의 빛에서 드러난다. 손끝으로 그 자국을 따라가 보면, 밤의 장면이 거짓말처럼 되살아난다. 물은 없는데, 길이 있다. 그 길은 늘 안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깥을 향해 열려 있기도 하다. 때로는 유리 위의 패턴을 따라 사소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전화를 걸지 않기로, 작업을 한 시간만 더 하기로, 저녁을 가볍게 하기로. 큰 결심이 아닌데, 그 사소한 결정들이 외로운밤을 덜 낯설게 만든다.

## 여백으로 남기는 마지막 빛

창문과 비 사이에 남는 것은 결국 여백이다. 합류하지 못한 방울이 끝내 마른 자리를 만들고, 바람이 멈춘 구간에서는 선이 갑자기 가늘어진다. 그 여백이야말로 우리가 숨 쉬는 곳이다. 언젠가 다시 채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지금은 비워 두어도 된다는 허락. 밤이 깊어질수록 창문은 거울과 스크린, 지도와 악보의 기능을 번갈아 수행한다. 나는 그 변화가 좋다. 그 변화 덕에 같은 방, 같은 의자, 같은 나를 조금씩 다르게 감각한다.



외로운밤에는 창문이 말을 건다. 소리로, 빛으로, 촉감의 기억으로. 그 말의 패턴을 읽을 줄 알게 되면, 비는 두렵지 않다. 어떤 밤에는 동행이 되고, 어떤 밤에는 조용한 선생이 된다. 물방울이 남긴 길들이 한참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길이 사실 내 안쪽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창을 닦아 자국을 지운다 해도, 한 번 알게 된 패턴의 감각은 쉽게 닳지 않는다. 다음 비가 올 때까지, 그 감각이 삶의 표면을 조금 더 미끄럽게, 즉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 준다. 그 유연함으로 우리는 지나가고, 다시 만난다.